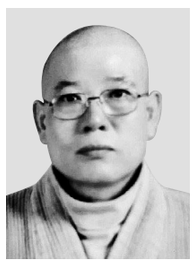
나를 알고 이웃 배려하는 자비행 실천을…

이기심 버리고 이웃 생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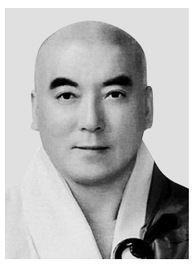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꽃비 흩날리며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헛된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하심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무명이라는 어둡고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남과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下心 도리 행하는 불자되자

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스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그 거룩함을 찬탄하지만 세계는 분열과 시기로 상생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오신 참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 중생을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화합과 상생으로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심의 도리를 행하는 참 불자가 됩시다. 자리이타의 자비광명을 기원합니다.

정진으로 성불 금자탑을

(사)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스님



두 길로 가려하면 한길도 못 가나니 한 길로 가고 가되 바른길 찾아가며 무위로 가는 곳이 당처안심 그 자리네. 學道는 쉽다 해도 득도하기 어려우며 得道는 쉽다 해도 수도하기 어려우며 修道는 쉽다 해도 行道는 어렵다네.

불성인 나를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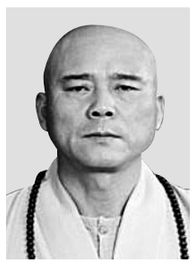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팔만대장경에 의하면 나는 끝없는 번뇌와 망상, 그리고 시비를 가리며 싸우는 혼탁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태양처럼 밝고 소소영영한 나입니다. 즉 본래의 나는 바로 절대적인 수명으로 육신의 죽음에도 여전히 불성으로 존재합니다. 고통스럽게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도 알고 보면 내안의 미혹이 만든 끔직한 결과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불성인 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소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우리 눈앞에 탄핵으로 물러선 박근혜 前대통령의 구속문제와 더불어, 북한과의 변화, 대통령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한 철저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을 하실지 잘 살펴 우리들이 최선의 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봉축하며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닮아지도록 더욱 노력정진해 나갑시다.

등불 밝힌 이유를 알아야

대한불교자비공덕회장 대풍 스님



우리 불자들은 초파일이면 항상 그렇게 했듯 등을 올려 밝힙니다. 왜 등불을 밝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지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관심 · 자비로 참 뜻 전하자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인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하는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불국토로 향하는 자비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자비행의 실천입니다. 교화는 물론 출소자에게도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진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 뜻일 것입니다.

동체대비로 한국사회 재구성

종교세계신문사 발행겸 편집인 윤기순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동체대비를 구현해야 한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봉축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얼마나 자비로웠나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각해 보자.



佛紀 2561年 丁酉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유일한 진실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저 세상을 포기한 자에게는
행해지지 않을 악이 없다. 〈법구경〉

학교 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경 선
교 장 정진완
교 감 권장석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김세경
교직원. 반야불자회 파라미타불교반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상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FAX 055)333-8203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정진호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서악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태화동 서악길 67-14
TEL 054-852-9126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TEL 051)542-7979, 545-794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 법인 능인학원 **능인중 · 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800)
TEL 053-235-4481, 053-232-9102 FAX 053-763-1807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나의 체질을 아시나요?
100세 시대는 체질을 알아야 미리 예방하여 병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인체에 대하여 공부한바로 나의 체질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체질을 알아야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먹을 수 있고 병은 체질에 맞는 한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 H·P 010-3522-2429